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여라.” 소설가 김영래씨(37)가 ‘호신부’로 삼고 있는 《수타니 파타》의 일절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가 작성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한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과의 경쟁을 통해 진화가 이뤄졌다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새롭게 씌어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종의 종말을 막고 환경파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돼야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화의 핵심은 어우러짐

이어, 그는 새로운 진화와 진보의 핵심은 어우러짐이라고 갈파한다.

“한마리의 박새와 딱정벌레와 얼룩등사리와 반달가슴곰과 한송이의 금강초롱꽃과 한포기의 고마리풀, 그리고 한그루의 산딸나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직시하는 것이 곧 진화의 핵심이자 진보의 근간입니다.”

이런 어우러짐의 철학은 김씨의 화제작 《숲의 왕》(문학동네)에 그대로 녹아 있다. 《숲의 왕》은 가상의 생태 공동체 ‘숲의 형제단’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을 실감나게 그렸다. 형제단은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라 불리는 숲에 등지를 틀고 있다.

“숲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소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숲을 바라보기 위한 통로인 셈입니다.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를 취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숲의 왕》은 소설적 모티브가 이색적이다. 꿈속에서 스님이 건네준 글자 하나가 소설의 동인이 됐다. 이 글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자(破字)로 만든 글자를 《숲의 왕》 26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풀 초(艸), 세상 세(世), 물 수(水)에다 지킬 수(守)를 합친 이 글자는 “풀과 물과 세상을 지켜라”는 의미다.

이 소설은 거친 면이 없지 않다. 작가는 이를 의도된 결과라고 말한다. “제 나름의 절박한 심경의 토로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소설 양



김영래씨

식 자체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환경운동을 대하는 일반의 시각에 문제가 없지 않아서 문명으로 대중과 교감하려 했지요.”

작은 실천이 중요해

“환경운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한 문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는 환경운동의 방안으로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작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편리함은 우리 삶을 옳아매는 족쇄나 다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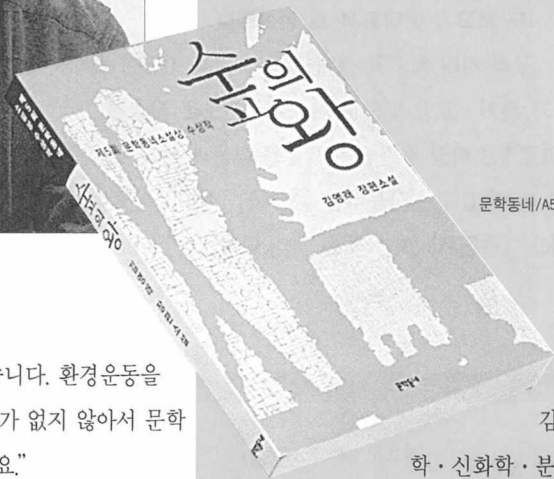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김영래씨는 ‘꽃세상을 위한 모임’의 활동을 존중한다. 특히, 이 모임이 주관하는 ‘꽃꽃상’을 높이 평가한다. 꽃꽃상 시상식은 지금까지 다섯번 있었는데, 수상자는 ‘보길도의 까만 자갈’ ‘인사동 골목’ ‘재만금 갯벌의 마당조개’ 등이다.

김영래씨는 환경문제를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시각은 그의 주된 관심사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해야 합니다”

《숲의 왕》 쓴 김영래씨

“한마리의 박새와 딱정벌레와 얼룩등사리와 반달가슴곰과 한송이의 금강초롱꽃과 한포기의 고마리풀, 그리고 한그루의 산딸나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직시하는 것이 곧 진화의 핵심이자 진보의 근간입니다.”



문학동네/A5신/304면/7500원

반영이다. 김씨는 인류학·신화학·분석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숲의 왕’이라는 화소(話素)도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김씨의 후속 작업 또한 신화적 상상력에 기대고 있다.

“나무에 관한 책(비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단수’(神壇樹)와 서양의 그것에 해당하는 ‘이그드라실’(Yggdrasill)을 다룬 책입니다. 이 신성한 나무들은 세계의 축을 형성하지요. 뿌리·줄기·가지는 각기 지하·지상·천상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좀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르크스 재평가 작업을 심중에 두고 있다. 실패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지, 마르크스 사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김영래씨의 마르크스관은 독특하다.

“그는 개인의 삶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명사상의 시조로 볼 수도 있지요.”

— 최성일 기자